



뽕은감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전망

뽕은감

2011년

11월호

※ 올해 뽕은감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전망

- 현재 병해충 상황 및 착과량을 기준으로, 뽕은감 생산량은 작년대비 18.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35%, 전남 38%, 경북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충북은 1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도와 착색은 좋지만 크기는 작을 듯

- 올해 뽕은감 당도와 착색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크기는 작년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꾀감가격 보합세 전망

- 올해 꾀감가격은 원료감 공급량과 수입량 감소로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나, 12월 햇꾀감 출하에 대비하여 재고 물량을 소진해야 하므로 11월 꾀감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꾀감 수입 거의 없을 듯

- 10월 중순부터 국내 뽕은감 수확이 시작되어 햇꾀감이 출하됨에 따라 11월 꾀감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권 제182호 2011년 10월 15일 발행(월간·비매물)
등록번호 동대문 마 00002호 발행·편집인 / 이동필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쇄 / (주)문원사

뽕은감 관측은 4, 8, 9, 10, 11월의 매월 15일에 발표됩니다.

■ 지역별 생산량 증감 전망

단위: 톤, %

구 분	2010년 생산량(톤)	2011년 생산량 증감 전망(%)
경 남	13,649	-35.3
경 북	56,050	-10.9
전 남	22,665	-38.0
전 북	2,632	-9.3
총 북	5,803	+15.3
전 국	101,950	-18.3

주1: 뽕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2011.9.26~9.30)
주2: 전국 값은 2010년 뽕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

■ 뽕은감 품질 전망

단위 : %

작년대비	크기	당도	착색
좋음	15.3	29.4	37.5
비슷	30.7	52.4	42.9
나쁨	54.0	18.2	19.6
계	100.0	100.0	100.0

주1: 뽕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2011.9.26~9.30)
주2: 전국 값은 2010년 뽕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

■ 뽕은감 출하 형태

단위: %

구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총북
생과(원료감)	39.0	35.9	84.3	26.7	41.7
곶감	38.8	29.3	11.0	68.3	55.8
반건시	18.7	10.6	1.7	5.0	2.5
감말랭이	3.5	24.2	3.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뽕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2011.9.26~9.30)

생산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

- 현재 병해충 상황 및 착과량을 기준으로, 올해 뽕은감 생산량은 작년대비 18.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에서는 여름철 장마로 낙과가 많아 작년보다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영암에서는 태풍 「무이파」로 인한 낙과가 많아 작년보다 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청도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주에서는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북 전체 생산량은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2010년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충북에서는 회복세를 보여 1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뽕은감 품질 전망

- 올해 뽕은감 당도와 착색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감의 크기는 작년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월 가뭄으로 과실비대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뽕은감 출하 형태

- 전남지역은 생과(원료감) 출하 비율이 높고, 경북지역과 전북 지역은 가공 출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지역과 충북지역은 생과(원료감) 출하와 가공 출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공형태는 곶감이 가장 많으나, 경북지역은 감말랭이 가공 비율이 24.2% 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동향 및 전망

꽃감가격 작년대비 상승

- 9월 꽃감 도매가격(상품기준)은 작년 동기대비 1.6% 상승, 소비자가격(중품기준)은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감 공급량이 감소하였고, 수입량도 감소하여 올해 꽃감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다.

11월 꽃감가격 보합세 전망

- 12월 햇꽃감 출하를 대비하여 재고물량을 소진해야 하므로 11월 꽃감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동향 및 전망

9월 꽃감 누계 수입량 작년대비 감소

- 9월까지 꽃감 누계 수입량은 1,022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41.1% 감소하였고, 금액은 238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28.1% 감소하였다. 중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산 꽃감의 수입단가는 매년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월 꽃감 수입 거의 없을 듯

- 10월 중순부터 국내 짧은감 수확이 시작되어 햇꽃감이 출하됨에 따라 11월 꽃감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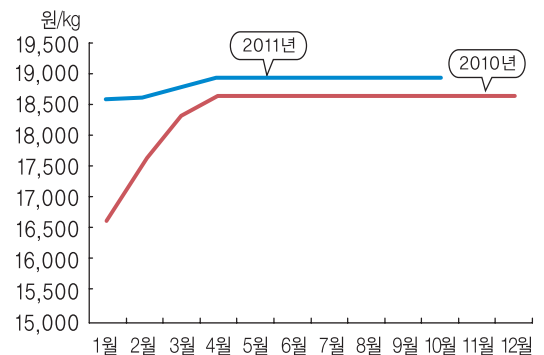
■ 꽃감 월별 평균 가격 동향

단위: 원/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가 '11	23,316	23,286	23,492	23,750	23,758	23,750	23,750	23,750	23,750
소비자가 '10	20,940	21,962	22,508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22,750
도매가 '11	18,583	18,604	18,745	18,920	18,928	18,920	18,920	18,920	18,920
도매가 '10	16,590	17,593	18,307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18,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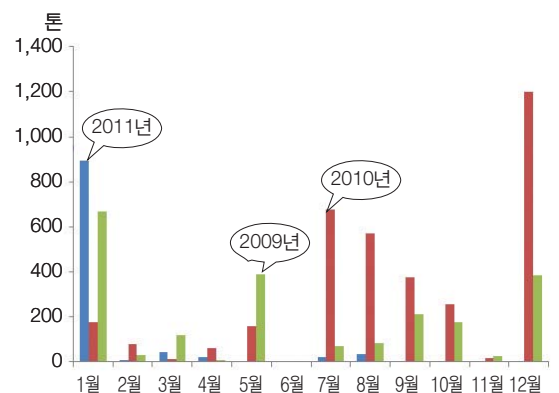
자료: 경동시장

■ 꽃감 월별 평균 도매가격 동향(상품기준)



자료: 경동시장

■ 꽃감 월별 수입량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관세청 (www.customs.go.kr)

뽕은감 소비 및 구매행태 조사결과

9월 26일에서 9월 30일까지 전국 501가구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뽕은감 소비 빈도 높아

- 소비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뽕은감 소비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뽕은감 소비자들은 '1년에 3~4회 먹는다'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 뽕은감 소비자들은 '1년에 3~4회 먹는다(30%)',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30%)',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20%)'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에 비해 소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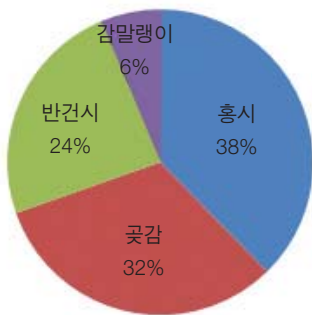
■ 뽕은감 소비 빈도

	1주일에 1회	2주일에 1회	1개월에 1회	1년에 3~4회
30대 미만	3.3	8.3	7.1	67.0
30대	4.2	4.2	14.7	69.2
40대	5.8	7.1	26.1	57.5
50대	8.7	15.5	19.4	52.4
60세 이상	10.0	20.0	30.0	30.0

뽕은감 제품 선호도

- 소비자들의 뽕은감 제품 선호도는 홍시(37.7%), 꽃감 (31.9%), 반건시(24.0%) 순으로 나타났다. 감말랭이 선호도(6.4%)는 다른 제품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뽕은감 제품 선호도



홍시 구매행태

- 홍시를 주로 구매하는 이유는 '맛이 있어서(68.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회 구입 시 주로 '1만원 미만 (57.5%)'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소포장 형태의 중간 사이즈 홍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홍시 구매행태

	구분	비율(%)
홍시 구입 이유	맛이 있어서	68.6
	영양가가 많아서	17.1
	명절음식으로	3.0
	차례·제수음식으로	2.4
	선물용으로	1.2
	기타	7.8
지출금액	10,000원 미만	57.5
	10,000~20,000원	28.0
	20,000~30,000원	9.0
	30,000~50,000원	4.0
	50,000원 이상	1.4

꽃감 구매행태

- 꽃감을 주로 구매하는 이유는 '차례·제수음식으로 (30.0%)' 쓰기 위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꽃감 1회 구입 시 주로 '1만원~2만원(38.3%)'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들은 소포장 형태의 중간 사이즈 꽃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꽃감 구매행태

	구분	비율(%)
꽃감 구입 이유	맛이 있어서	24.0
	영양가가 많아서	10.8
	명절음식으로	24.0
	차례·제수음식으로	30.0
	선물용으로	7.0
	기타	4.3
지출금액	10,000원 미만	30.1
	10,000~20,000원	38.3
	20,000~30,000원	17.7
	30,000~50,000원	10.9
	50,000원 이상	3.0

중국산 꽃감 소비행태

- 꽃감 소비자들 중 17.0%는 중국산 꽃감 구입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산 꽃감을 구입하는 주된 이유는 '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61.2%)'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 시기에 국산 꽃감 물량이 없어서 중국산 꽃감을 대체 구입한다는 의견(35.8%)도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중국산 꽃감 품질이 국산보다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 중국산 꽃감 소비행태

구분		비율(%)
중국산 꽃감 구입 이유	가격이 싸서	61.2
	국산 꽃감보다 품질이 좋아서	3.0
	국산 꽃감 물량이 없어 중국산 대체 구입	35.8
중국산 꽃감 품질 평가	국산보다 나쁨	91.1
	국산과 비슷	8.9
	국산보다 좋음	0.0

반건시 구매행태

- 반건시를 주로 구매하는 이유는 '맛이 있어서(43.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회 구입 시 주로 '1만원~2만원(34.7%)' 또는 '1만원 미만(32.9%)' 지출하며 소포장 형태의 중간 사이즈 반건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건시 구매행태

구분		비율(%)
반건시 구입 이유	맛이 있어서	43.5
	영양가가 많아서	18.3
	명절음식으로	8.3
	차례·제수음식으로	8.3
	선물용으로	12.3
	기타	9.5
지출금액	10,000원 미만	32.9
	10,000~20,000원	34.7
	20,000~30,000원	18.8
	30,000~50,000원	11.6
	50,000원 이상	2.0

감말랭이 구매행태

- 감말랭이 소비자들은 '다른 껌은감 제품보다 맛이 있기 때문에(24.9%)'와 '영양가가 많아서(27.8%)'라는 점을 주된 구입 이유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은 '먹기 편해서', '간식용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1회 구입 시 주로 '1만원 미만(44.1%)' 또는 '1만원~2만원(40.4%)'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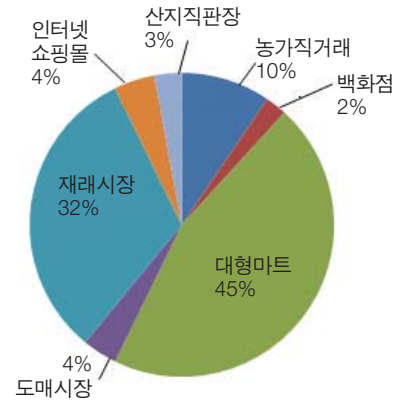
■ 감말랭이 구매행태

구분		비율(%)
감말랭이 구입 이유	맛이 있어서	24.9
	영양가가 많아서	27.8
	명절음식으로	6.4
	차례·제수음식으로	4.6
	선물용으로	8.7
	기타	27.5
지출금액	10,000원 미만	44.1
	10,000~20,000원	40.4
	20,000~30,000원	11.6
	30,000~50,000원	3.6
	50,000원 이상	0.3

꺾은감 구입은 주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 소비자들은 꺾은감을 주로 대형마트(45.5%)와 재래시장(31.8%)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9.5%는 농가와 직거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꺾은감 구매처



'꺾은감은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 소비자들의 62.8%는 꺾은감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과일에 비해 저렴하다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꺾은감은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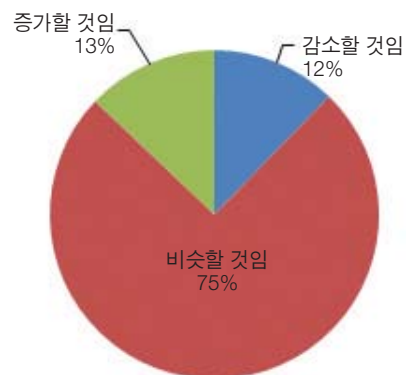
■ 꺾은감 가격

너무비싸다	약간비싸다	보통이다	약간 싸다	매우 싸다	합계
8.9%	53.9%	31.5%	5.6%	0.0%	100%

꺾은감 소비는 현재 수준 유지 전망

- 앞으로의 꺾은감 소비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많았다.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겠다는 응답은 각각 12.9%, 12.2%로 비슷하게 나타나, 향후 꺾은감 소비는 현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꺾은감 소비 전망



감말랭이 만들기

- 감말랭이는 씨 없는 짧은감의 건조 가공품으로 제조기간은 약 10~15일 정도 소요된다. 감말랭이를 건조 할 때 저온이 계속되면 숙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짧은맛이 남아 상품성이 떨어진다. 이때 에테폰액제로 연화 및 탈삼시킨 후 감을 박피하여 건조하면 에틸렌가스에 의해 성숙 및 착색이 촉진되어 짧은맛이 남지 않고 제품색도 선홍색으로 균일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자료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www.gba.go.kr)

◎ 기압계 전망

※ 기상청(www.kma.go.kr), 2011년 10월 13일 발표

10월 하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교대로 받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으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1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이 많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음.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11월 중순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내륙 산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순별 예보

- 10월 하순: 기온은 평년(9~18℃)보다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0~33mm)과 비슷하겠음.
- 11월 상순: 기온은 평년(7~16℃)보다 낮겠으며, 강수량은 평년(12~34mm)보다 적겠음.
- 11월 중순: 기온은 평년(4~14℃)과 비슷하겠으나, 강수량은 평년(9~30mm)보다 적겠음.

■ 순별 기온 및 강수량¹⁾

단위: °C, mm

구 분	전 국	서 울	강 릉	대 구	전 주	광 주	부 산	제 주	
10월 하순	최고기온	18.8	17.3	18.5	19.8	19.2	19.6	20.7	19.6
	최저기온	6.8	7.8	9.1	8.3	7.4	8.6	12.0	13.3
	강 수 량	16.7	16.5	33.3	11.2	20.1	17.9	17.8	23.9
11월 상순	최고기온	16.5	14.7	16.4	17.6	16.9	17.3	18.8	18.1
	최저기온	5.1	5.9	7.7	6.5	5.9	6.7	10.2	11.7
	강 수 량	17.8	22.2	2.8	12.5	17.3	16.2	16.9	22.7
11월 중순	최고기온	13.4	11.1	13.3	14.2	13.6	14.2	16.1	15.7
	최저기온	2.7	3.0	4.9	4.1	3.3	4.4	7.6	9.7
	강 수 량	14.0	16.2	29.9	8.6	15.1	15.0	11.0	16.9

주1: 1981~2000년의 평균치임

임업관측(짧은감) 2011년 12월호 예고 (예정일자: 2011. 11. 15)

- 내 용 : 짧은감 재배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입동향 및 전망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우측【바로가기】메뉴바의【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235 FAX: 02) 960-0165
<http://www.forest.go.kr> ☎ 042) 481-4206 FAX: 042) 471-1446

담당자: 민경택, 석현덕, 안선진

이 「임업관측(짧은감)」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소에서 재배자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